

나의비전스토리 2편

내가 갖고 있는 무기는 용기야!

나의비전스토리, 소중한 꿈에 관련한 기억을 엮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신을 발견하고 꿈을 찾는 시기가 아닐까요?

사회에 나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나의 고유한 정체성과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길에 있어서

혼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의비전스토리는 나 자신과 꿈에 대해 관심 있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장차 펼쳐질 길에서 꽃, 나무, 바람, 풀, 나비, 벌, 열매, 향수, 책, 친구들과

각자 소중한 세 가지를 가지고 각자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 . ? “” “!”와 같은

다채로운 감성을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변신하고 서로 서로 “너만 괜찮다면 다 괜찮아” 하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영웅이 되어주는 매일을

낡은 노트북에 기록해나가는 보물과 같은 이야기들을 1편, 2편에 나누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의비전스토리를 함께 읽으며,

여러분들의 소중한 꿈도 함께 엮어나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발간에 즈음하여’

선린애육원장 박정민

‘나의 비전스토리’ 프로그램의 결실로서 동화책을 발간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1년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매주 모임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던 아이들의 유쾌하고 즐거운 모습이 생각납니다. 마스크를 하고 있어도 숨길 수 없었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노라면 ‘오늘은 또 무슨 즐거운 일이 아이들의 가슴을 뛰게 하나?’ 하는 행복한 궁금증이 생기곤 했습니다. 한 계절을 그렇게 애쓰며 노력한 결과로 만들어진 동화책이 값지고 소중한 보물처럼 느껴지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주고자 시작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숨은 잠재력을 발견하고 생각의 주머니도 한 뼘은 더 자랐으리라 생각되며 열심히 노력한 모두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각자가 꿈꾸는 멋진 미래를 향해 열심히 달려갔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 봅니다.

모두가 우리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런 유쾌하고 즐거운 일도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글지도 않은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엮어서 멋진 동화책으로 만들어 주신 웨어라이프와 특별히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신 포스코1%나눔재단, 창포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반짝 반짝 빛날 나비들의 꿈을 응원해”

선린애육원 학습지원과장 정교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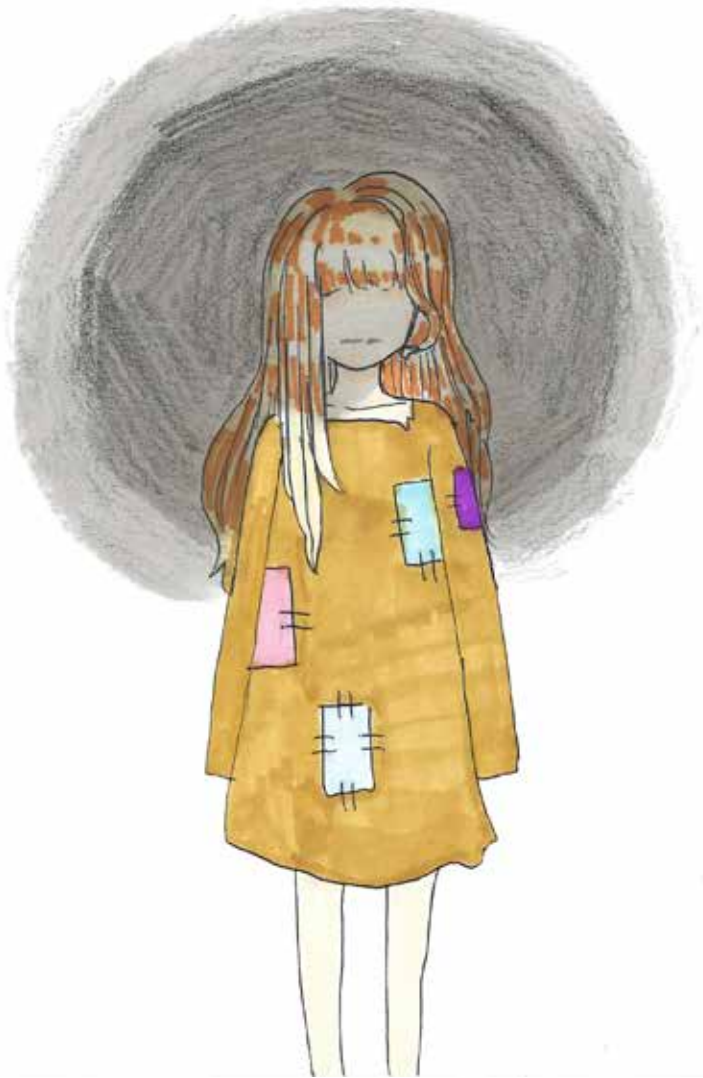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아이들의 멋진 도전의 결실인 동화책이 드디어 완성되어 세상 밖에 선을 보이게 된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지며 시작한 ‘동화책 만들기’라는 프로젝트. 처음에는 아이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나 봅니다. 동화 속 인물되기, 작품 분석하기, 캐릭터 분석하기, 나만의 캐릭터 만들기, 네 컷 동화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꾸며진 프로그램을 접하며 낯선 활동에 시작부터 우왕좌왕 좌충우돌. 무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아이, 생각은 있지만 말로도 글로도 표현하기 어렵다는 아이...

힘든 난제를 만난 것처럼 고민하고 어려워하던 아이들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성장하며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건 담당자의 특권이었습니다. 이번만큼은 꼭 완성하겠다는 각오로 매 순간 활동에 열정을 보이며 참여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져 감동이 일기도 했고 회를 거듭할수록 표현도 풍성해지고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는 아이들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선물 같은 순간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럽기도 했습니다. 역시 아이들의 잠재력과 상상력은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뛰어넘나 봅니다. 누구보다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우리 아이들이 동화책을 받고 활짝 웃는 모습을 상상하니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비전스토리’를 통해 상상의 세계를 현실 세계로 옮겨와 동화책을 펴기까지 도움을 주신 웨어라이프 대표님과 꿈을 응원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 포스코1%나눔재단, 창포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중한 세 가지, 남혜윤



옛날에 아주 작고 여린 소녀가 살았어요.
그 아이는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이 소녀는 가진 게 없다 보니
자신감도 없었어요.



평소처럼 기분이 꿀꿀하던 아이는
'길을 걷다 보면 기분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10분, 20분 걷다 보니
옷가게를 발견하였습니다.
여린 소녀는 옷가게의 옷을 보고
지금까지 우울했던 기분이
점차 나아지면서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소녀는 생각했어요.
'나도 어여쁜 옷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소녀는 그 이후 소중한 3가지가 생겼답니다.

첫 번째, 미래의 희망이 되는 꿈.
둘째, 언제나 웃을 수 있는 마음.
셋째, 멋진 자신감



소녀는 이제 더는 여린 소녀가 아닌 강한 소녀
로, 가진 게 많은 소녀로 바뀌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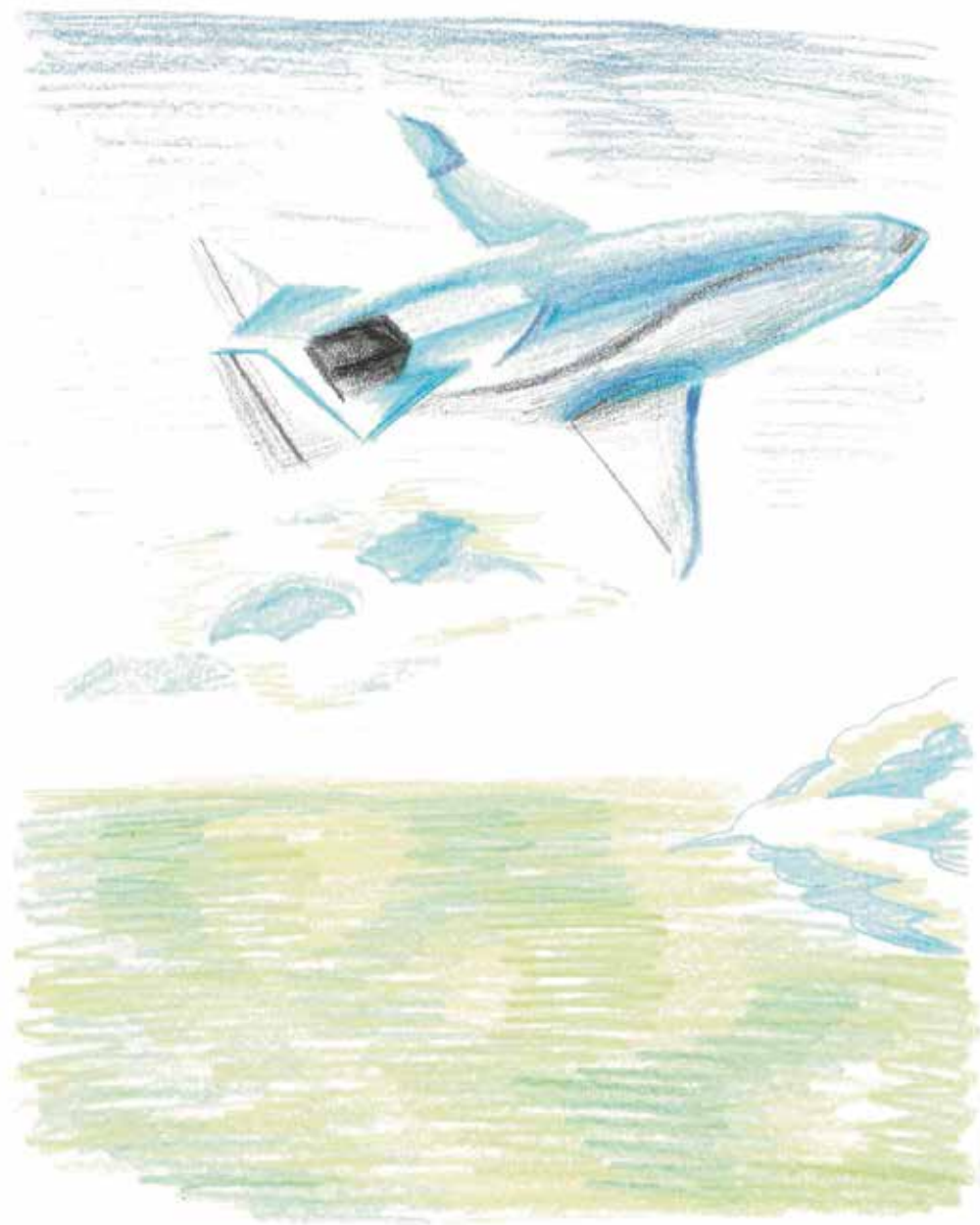
이것이 바로 인생, 이예지&최보민



빠르게



좀 더 빠르게



매우 빠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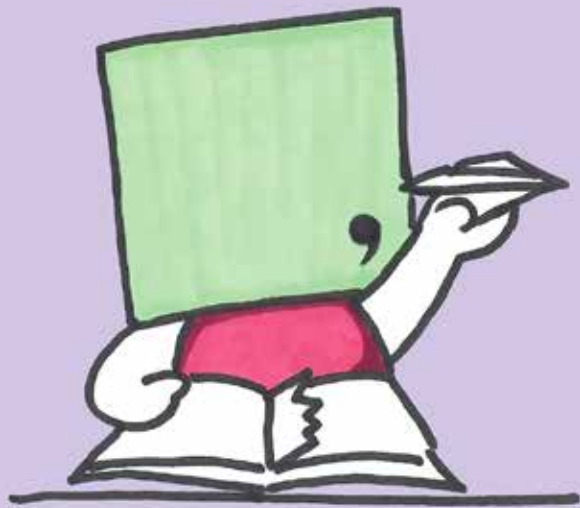


조그은 천천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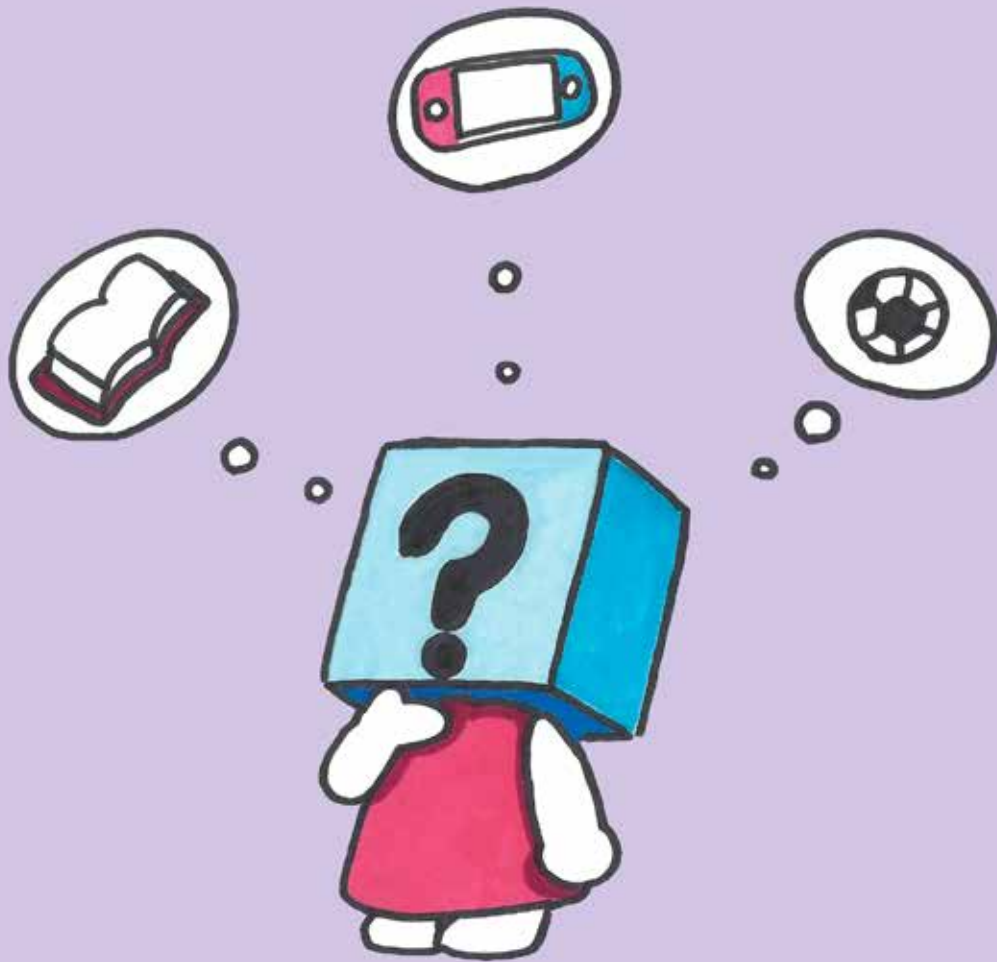


느리게 걸어야 보이는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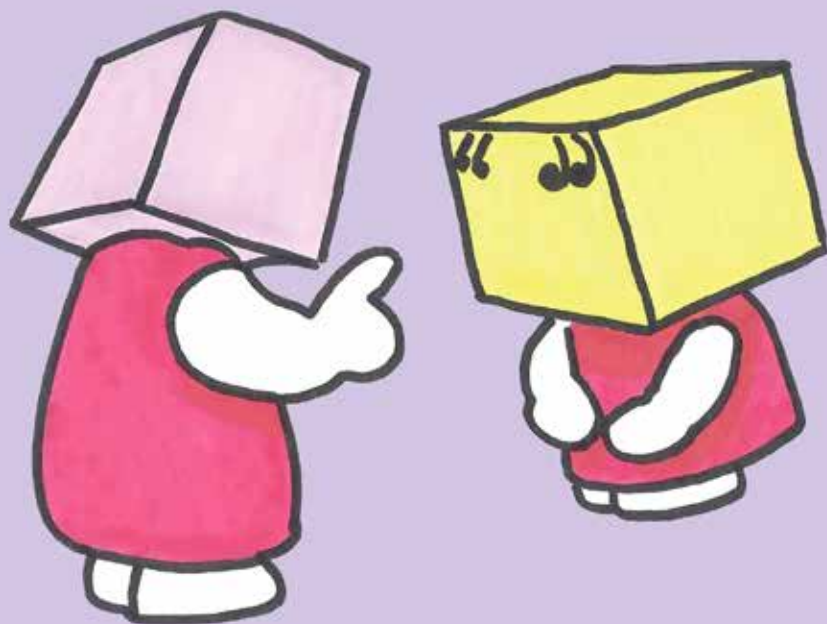
나의 감정들, 김지원&최보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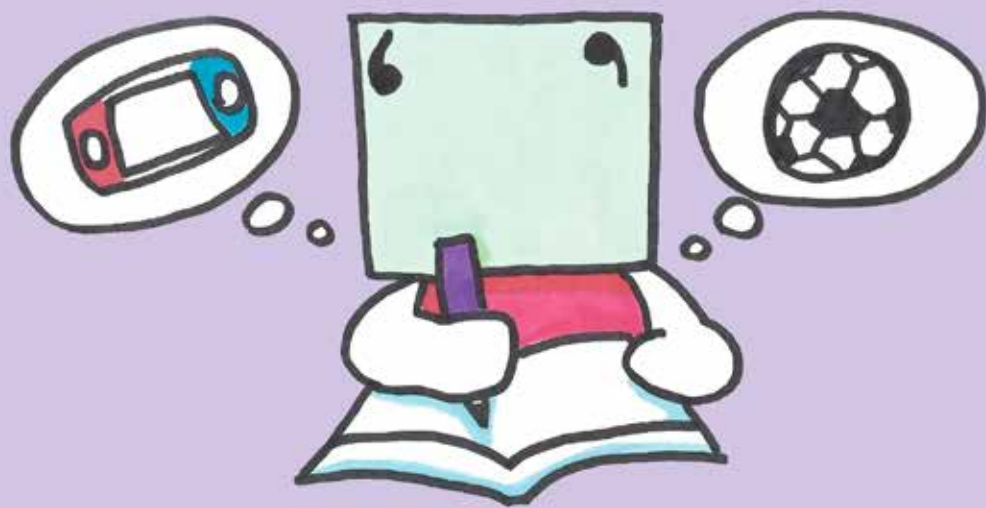
나는 ,맨이다.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싶다



나는 ?맨이다
나는 공부?축구?게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 " 맨이다
이모가 와서 말한다.
"놀이말고 공부좀 해라"



나는 ' ' 맨이다.

' 나는 공부말고 게임이랑 축구를 하고 싶은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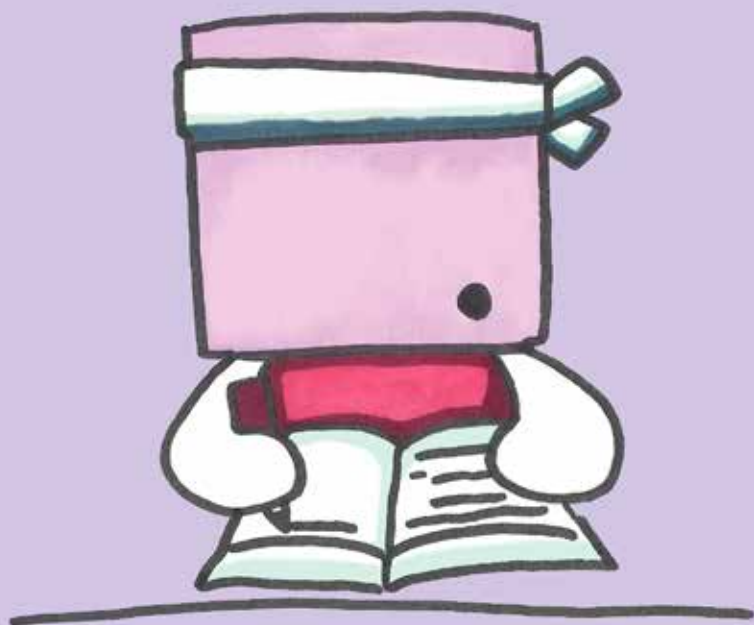
' 아니다 공부를 하면 사회 생활에 도움이 되고
영어 공부를 외국을 가서 재미있게 놀 수 있겠다 '



나는 !맨이다.

그래 결심했어!!!

나는 지금부터 공부에 집중할거야!



나는 .맨이다.
나는 오늘부터 많이 놀지 않고
공부에 진심을 다하겠어.

변신, 주미정



어느 날,
나는 이상한 걸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그것은 바로 바로 겁에 질린 아이였다.
그 아이는 나와 매우 닮았다.

깜깜해 아무도 오지 않는 한 외가에서
아이는 벌벌 떨며
미술도구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나타났다.



갑자기 그 아이는 빙글 빙글 돌더니
눈동자 반쪽이 분홍색으로 바뀌면서
변신하는 하는 거였다.

영웅이 가지는 망토, 무기도 없이
예쁜 옷을 입은 아이였다.

"너는 왜 무기가 용기가 없어?"

"필요 없으니깐"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용기'이야.
난 그저 용기를 되찾으려고 온 것뿐이야."

그 아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용기가 이미 있다면 용기를 다시 찾다니?
난 그냥 집으로 갔다.



따르릉~

세상에서 가장 싫은 건 숙제보다 알람시계다.
겨우 몸을 일으켜 기상을 했다.
벌써 8시. 지각이다!!

학교에 늦지 않고 도착해
밀린 숙제를 하고 있었다.

"야! XX 주미정! 빨리 와!"

"그래~알겠어.."

너무 귀찮지만 괴롭히는 애들이라
대충 대답을 하고 갔다.



"야! 너 내 숙제 해줄 수 있지?
이 말만 몇 번째다.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시면 무조건 나를 시킨다.
"휴~ 알겠어."

나는 숙제를 하러 외가에 갔고
무서워서 필기구와 미술도구를 떨어뜨렸다.

근데 이상했다.
어제 나와 똑. 같. 은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모른척 하고 있었는데 음성이 들렸다.

"용기를 되찾는 게 어때?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
나는 알겠다고 했고 그러자..



내가 빙글 빙글 돌아가며 변신하는 것이다.
그것도 어제 봤던 옷으로!

나랑 아주~닮은 애가 말을 걸었다.
"너는 왜 망토나 무기가 없어?"
어! 내가 어제 물어본 말이다.

나는 똑같이 대답했다.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용기'이야.
난 그저 용기를 되찾으려고 온 것뿐이야.

신기하게도 그 말이 술술 나왔다.

크하하하

진짜
웃겨



그 아이는 나와 똑같이 생겼다.

오늘 입은 옷, 내가 변신한 것까지 똑같았다.

'내가 설마 오늘의 나를 어제 본 건 아니겠지?'
그래도 좋다. 덕분에 용기를 되찾았으니깐.

과거의 나와 소통한 것,

내가 변신해서 과거의 나에게 좋은 말을 한 경
험이 미래의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 자체만
으로
용기를 되찾게 된다.

내가 정말 어제의 나를 본 건가?

너만 괜찮다면 다 괜찮아, 정교선&최보민



개미마을에 남들보다 일찍 일을 시작하는
성실한 개미 한 마리가 살았어요.
성실한 개미는 오늘도 어김없이
다른 개미들보다 일찍 일을 시작했답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해보자~!!"



얼마 후 일을 하러 온 개미들이
성실한 개미에게 인사를 건네요.

"안녕?"

"헉~ 뭐지? 벌써 일을 시작한 거야?"

다른 개미들은 성실한 개미를 보고 놀랐답니다.



개미들은 함께 열심히 일을 했고,
어느덧 집에 갈 시간이 되었어요.

개미들이 우르르 집으로 돌아가는 와중에도
성실한 개미는 일을 멈추지 않았답니다.

"헉~! 넌 안가?"

"집에 가자"

일을 그만하고 집에 돌아가자는
개미들의 권유에도
성실한 개미는 일을 하며 대답했어요.

"난 아직... 먼저가 ㅎㅎ"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혼자 일을 하고 있는 성실한 개미에게
한 개미가 말을 걸었어요.

"아니~ 아직 일하는 거야?"
이에 성실한 개미는 웃으며 이야기 했어요
"응응 ㅎㅎ 으쌔~으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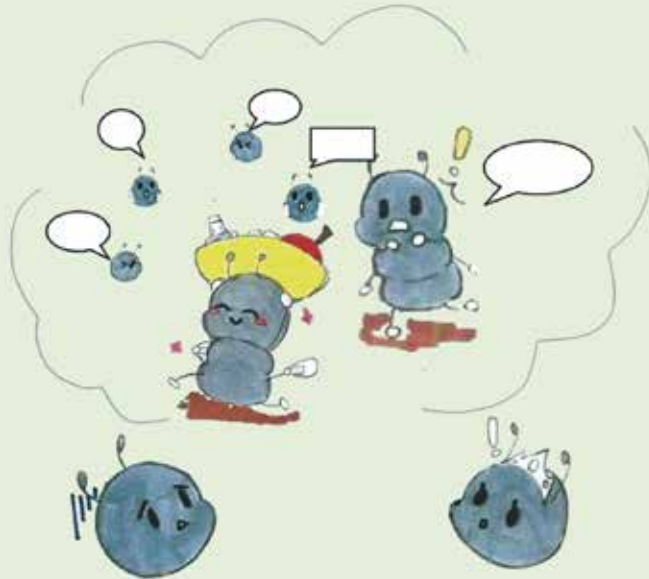


일을 마친 성실한 개미는
여왕개미를 찾아갔어요.

"여왕님 고민이 있어요"

여왕개미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무엇이니?"



근심이 가득한 표정의 성실한 개미는
풀이 죽은 목소리로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다른 개미들보다 느려서 좀 더 일찍..."

때로는 늦게까지 일을 할 때가 있는데

다른 개미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요."



여왕개미는 성실한 개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개미야! 괜찮아~
너만 괜찮다면 다~ 괜찮아"



남들보다 일찍 일을 시작하는 성실한
개미는 오늘도 다짐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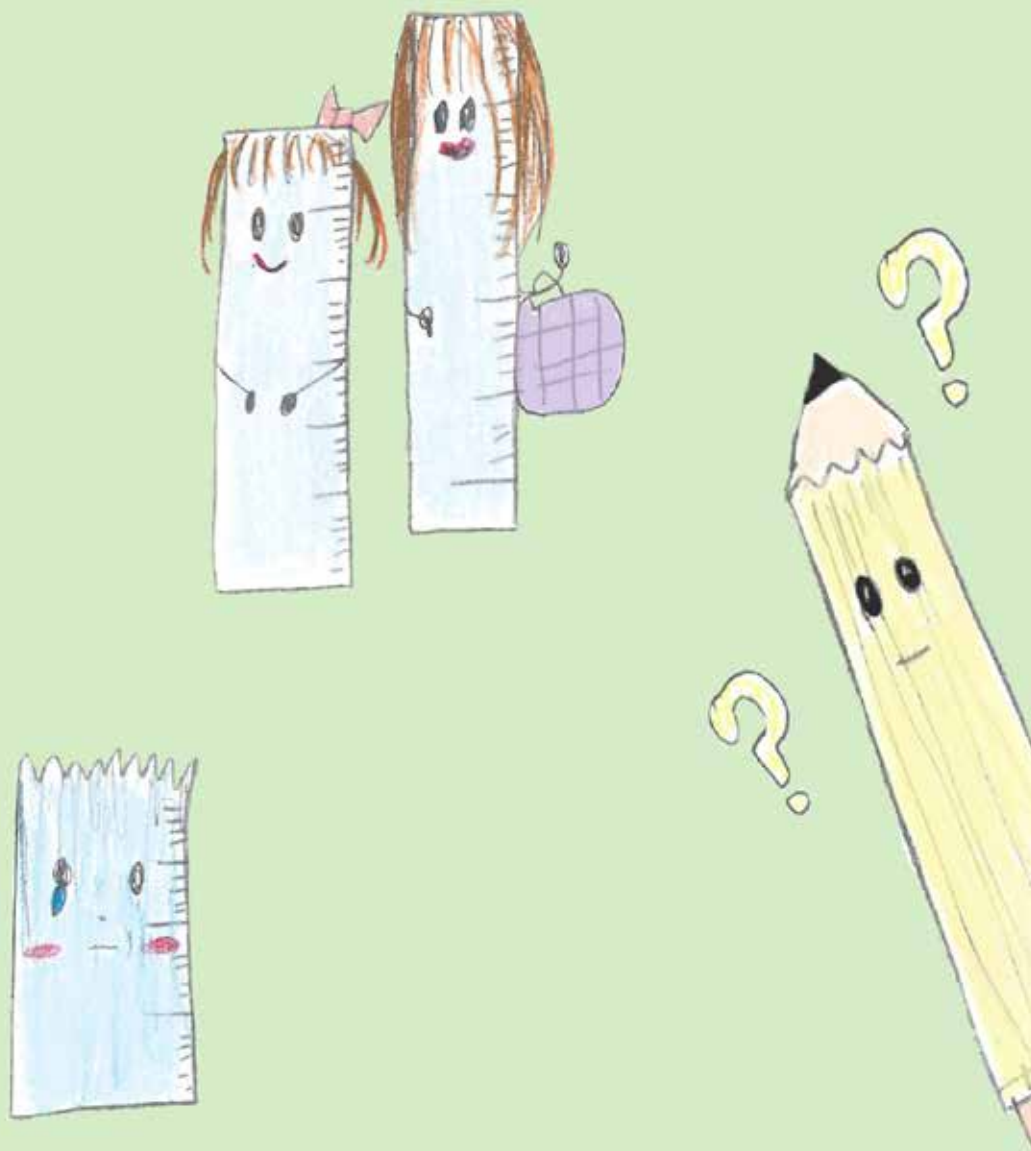
오늘도 열심히~
아자! 아자!



나는야 영웅, 장해리



"나는 연필이다. 모두 날 좋아해 준다.
왜냐하면 나는 영웅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연필의 영웅담을 들려주겠다.



"흑흑"

'뭐지?'

연필은 다가가 물어보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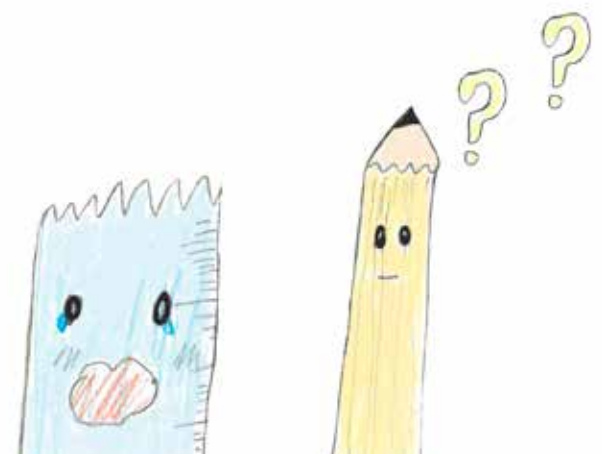
"무슨 일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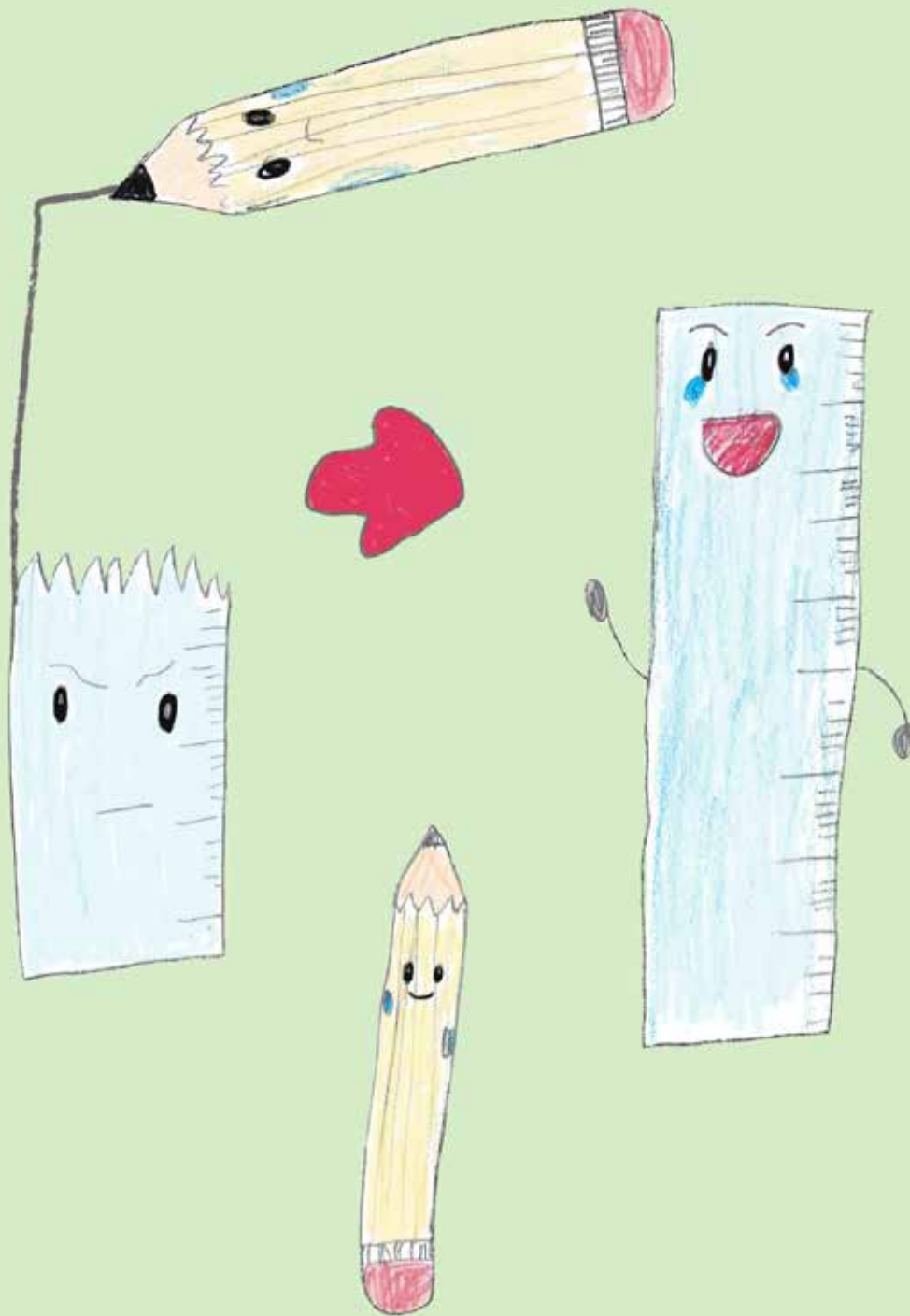
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

"내 친구가 내 눈금이 잘려서
나랑 놀지 않겠대. 어떡해! 흑흑"

자는 다시 울기 시작했지.

으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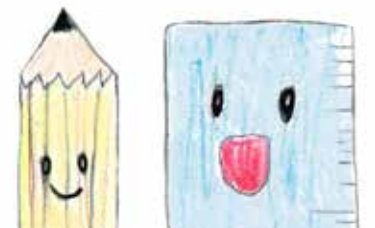


연필은 자를 달래준 뒤 말했어.
"자야, 내가 좀 도와줘도 되니?"
"그러든지..."

연필은 자의 눈금을
땀을 흘리며 그리기 시작했어.
그러자, 자는 멋진 자가 되었지.
연필이 헉헉거리면 말했어.

"너... 정말 멋져!!"
"이..이게 정말 나라고?? 고..고마워!"
연필은 아주 뿌듯했어.
'자가 행복해하니까 나도 행복해~'

연필과 자는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어!
연필과 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함께 다녔지.





어느 날 연필과 자는
도넛을 사러 도넛 가게에 갔어.

그런데 도넛 가게에
아기 지우개가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

연필은 지우개에 다가가 물었지.

"지우개야, 왜 울고 있니?"

지우개는 말하지 않았어.

그러자 자가 말을 걸었어.

"지우개야! 울지마! 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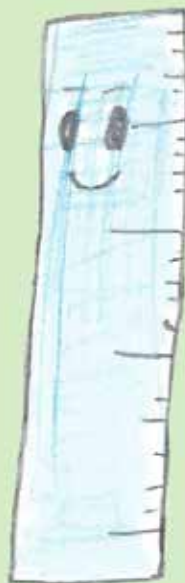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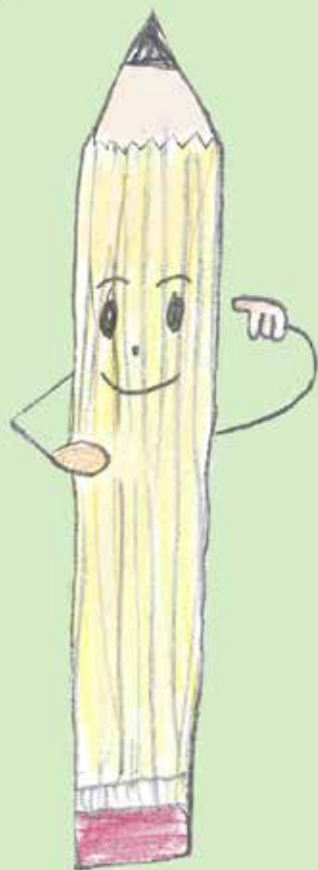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우개가 울음을 멈추고 말했어.

"내가 너무 더러워서

나에게 도넛을 팔지 않겠대."

연필은 한참을 고민했어.



연필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
그런 모습을 본 자는 연필에게 속삭였어.

"너는 연필이잖아! 날 고쳐준 것처럼
깨끗하게 다시 그려주면 되잖아!"

연필은 바로 지우개를 다시 그려주었지.
지우개는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되었어.

"연..연필 아저씨... 감사합니다."

연필은 다른 필기도구들을 도와주는
영웅과 다름없지.
그런 연필을 모두 '영웅'이라고 불렀어.

현 노트북, 장예성



한국에 사는 어떤 아이가 있었다.
그의 성격은 배려심 많고 내성적인 아이였다.
그런 그에게는
아주 낡고 현 노트북 하나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친구들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돈이 있으면서 왜 새 노트북을 사지 않고
현 노트북을 쓰니?"

그는 친구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대단한 건 몰라도 돼"

친구들은 그 말을 듣고 의아했다.



다음날 친구들은 그와 놀려고
그의 집에 도착했다.

그런데 문을 두드려도 초인종을 눌러도
문이 열릴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그때 문이 열렸다.
문을 연 건 그가 아닌 그의 동생이었다.
그의 동생은 그가 자고 있어서
자신이 열었다고 했다.

친구들은 그를 깨우려 방에 들어갔는데
그의 옆에 있는 노트북을 보고 놀랐다.



그의 노트북에 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옛날 초, 중학교 친구들과 놀던 사진들이었다.
그의 친구들은 그가 왜 이리
현 노트북을 아꼈는지 그제야 알게 되었고,
친구들은 그와 더 친하게 지냈다.

